

통일 그림동화 02

# 캠핑 가는 날

전현정 글 | 서미경 그림



통일부  
통일교육원





글 전현정

대학에서는 집 짓는 법을 배웠고, 엄마가 돼서는 동화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글 짓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근사한 할머니가 되기 위한 절대 에너지는 동화책 속에 꼭꼭 숨어 있다고 믿으며, 지금도 열심히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으랏차차 똥보 클럽》으로 제19회 황금도깨비상을 받았고,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2018년 통일교육원과 함께 작업한 그림책 《이혜리와 리혜리》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헬로 오지니》《니체 아저씨네 발레 교실》《폴리처 선생님네 방송반》《한밤의 철새 통신》《오색찬란 아프리카는 겁지 않아》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남극세종기지설립 30주년 기념 남극체험단으로 선정되어 남극세종기지와 남극특별보호구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림 서미경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다가가는 그림책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인천의 작고 하얀 집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린 책으로 《뼈 있는 동물 이야기》《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당찬 여성 이야기》《친구를 만난 날》《신문지야, 놀자》 등이 있고, 《우리 할머니 김복자》는 첫 창작 그림책입니다.

# 캠핑 가는 날

전현정 글 | 서미경 그림







내일은 유치원에서 캠프를 하는 날이에요.  
민재는 내일 밤 혼자 잘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그때 엄마가 민재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민재는 형이 되는걸.  
형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수 있어.”  
엄마 말에 민재는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안고  
코를 세 번 비볐어요.  
잠이 안 올 땐 이게 최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동생을 낳으러 가고 없었어요.  
민재는 할머니와 유치원에 갔어요.  
엄마와 뽀뽀를 하며 헤어지는 친구를 보니 괜히 심통이 났어요.  
민재는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유치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하루 사이 유치원은 캠핑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텐트가 서 있고,  
미끄럼틀 아래에는 물놀이장이 생기고,  
머리 위로는 알록달록 종이 장식과 풍선이 바람에 날렸어요.  
스피커에서는 민재가 제일 좋아하는  
'개미 심부름'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텐트 옆 모래 놀이터에 아이들이 모였어요.  
헤린이와 수민이는 모래성을 쌓고,  
서윤이와 나래는 두꺼비집을 만들고,  
민재와 현태는 삽으로 모래 파기 놀이를 했어요.





민재 앞에 흙이 쌓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갑자기 거무튀튀하고 길쭉하고 꾸물거리는 뭔가가 발 위로 툭 떨어졌어요.

“뱀이다!”

현태가 소리치자 모래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달아났어요.

울고 있는 민재 앞에 동희가 나타났어요.

동희는 민재 발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걸 맨손으로 집었어요.

“뱀 아니고 지렁이인데?”







강당에서는 운동회가 열렸어요.  
과자 따 먹기와 달리기 게임이 끝나고 줄다리기가 시작됐어요.

청팀과 백팀이 모두 팽팽하게 맞서 한참 동안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간 나래 대신 동희가 들어오고  
뽁, 호루라기 소리가 났어요.

**퐁!**

동희가 힘을 주자마자  
반대편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 왔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뒤엔 구슬 찾기 놀이를 했어요.

“나는 한 개 찾았다.”

“나는 세 개.”

여기저기서 구슬을 찾았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재는 놀이가 끝날 때까지 한 개도 찾지 못했어요.  
구슬을 치즈볼로 바꾼 강우를 보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치즈볼은 민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그때였어요.

동희가 민재에게 구슬 두 개를 내밀었어요.

“이거 너 가질래? 난 또 있어.”

동희가 주머니 가득한 구슬을 보여 줬어요.  
민재와 동희는 구슬을 치즈볼로 바꿨어요.  
오늘따라 치즈볼 맛이 더 고소했어요.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드디어 잠잘 시간이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금방 잠이 들었지만 민재는 통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브라키오사우르스 코를 열 번 넘게 비볐는데도  
잠은 안 오고 엄마 생각만 났어요.  
딱 눈물이 나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지? 아까 엄마 생각이 난다고 했던 나래일까?  
배가 아프다고 했던 서윤일까?  
달리기 일등을 못 해 속상하다고 했던 수민일지도 몰라.

어쨌든 동희는 아닐 거예요.  
동희는 우리 유치원에서 키도 제일 크고, 용감하고, 힘도 세니까요.  
민재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울고 있는 친구는 나래도 서운이도 수민이도 아닌 동희였어요.  
동희는 지금 배가 많이 아픈 건지도 몰라요.  
나쁜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요.  
엄마 생각이 나서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때 동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푹 떨어졌어요.  
“나, 엄마 보고 싶어.”  
“내일 되면 만나잖아.”  
“아니, 못 만나. 우리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있어.”  
“차 타고 가면 되잖아.”  
민재 말에 동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럼, 비행기 타면 되잖아.”  
동희가 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럼, 엄마가 널 보러 오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못 와.”  
“왜? 너희 엄마는 어디에 살아?”  
“청진.”







동희 엄마는 민재 삼촌이 사는 남아프리카보다  
펭귄이 사는 남극보다 더 먼 곳에 사나 봐요.

동희가 우니까 민재도 울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꼭 참았어요.

민재는 내일이면 엄마를 볼 수 있으니까요.

민재는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동희에게 내밀었어요.

“꼭 안고 코를 세 번 비벼 봐. 그럼 잠이 솔솔 와.”

동희는 민재 말대로 했어요.

둘은 나란히 누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민재와 동희를 비췄어요.

민재도 동희도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민재와 동희가 빨강고 노란 꽃이 가득한 숲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들리더니  
까만 먼지구름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티라노사우루스가  
콧김을 뿜으며 둘을 바짝 쫓아왔어요.  
민재와 동희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민재와 동희를 태우고 한참을 달려서  
어느 하얀 집 앞에 내려 쫓어요.  
문 앞에서부터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했어요.

갑자기 멈춰 선 민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민재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코를 세 번 비비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갑자기 산만큼 커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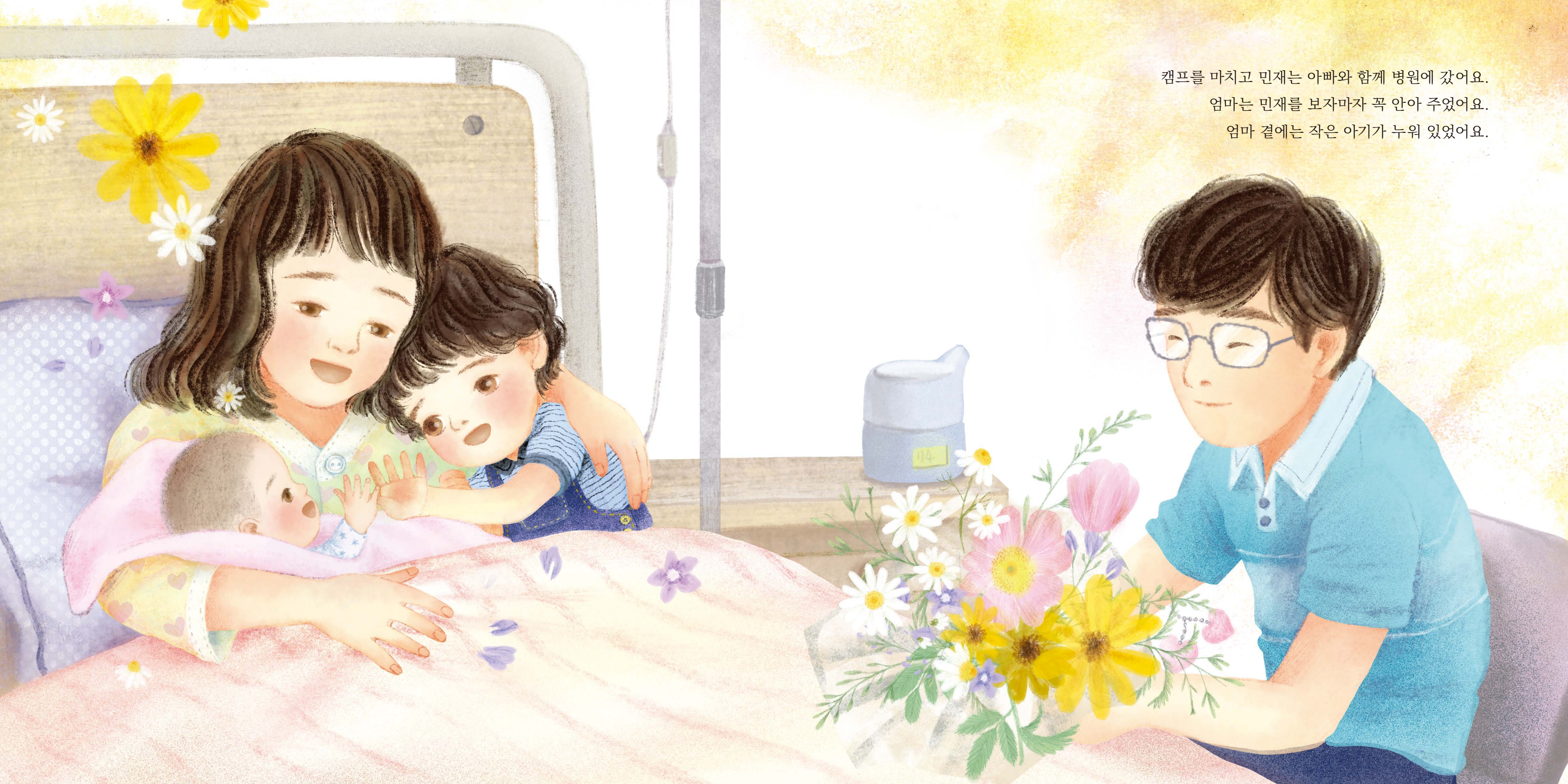




하얀 문을 열고 동희를 꼭 닮은 아줌마가 나왔어요.  
“엄마!”  
동희와 엄마는 서로 꼭 껴안았어요.  
민재가 빵 한 개를 다 먹을 때까지 동희와 엄마는 꼭 안고 있었어요.



캠프를 마치고 민재는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엄마는 민재를 보자마자 꼭 안아 주었어요.  
엄마 곁에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민재가 동희에게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내밀었어요.

“너는?”

동희가 민재를 쳐다보았어요.

“난 이제 형이라서 없어도 괜찮아. 잠 안 올 때 알지?”

둘은 동시에 손을 코에 가져갔어요.



# 《캠핑 가는 날》 독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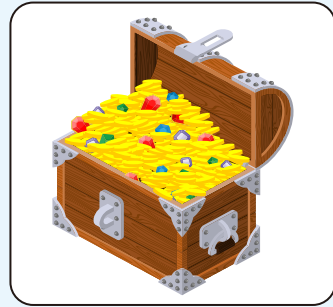


1. 민재가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모래 놀이를 하고 있어요. 위아래 그림을 잘 보고, 아래 그림에서 다른 그림 5곳을 찾아보세요.





2. 보물 상자로 가는 길은 하나뿐! 나머지 두 갈래 길은 굼주린 티라노사우루스와 마주치게 돼요. 가, 나, 다 중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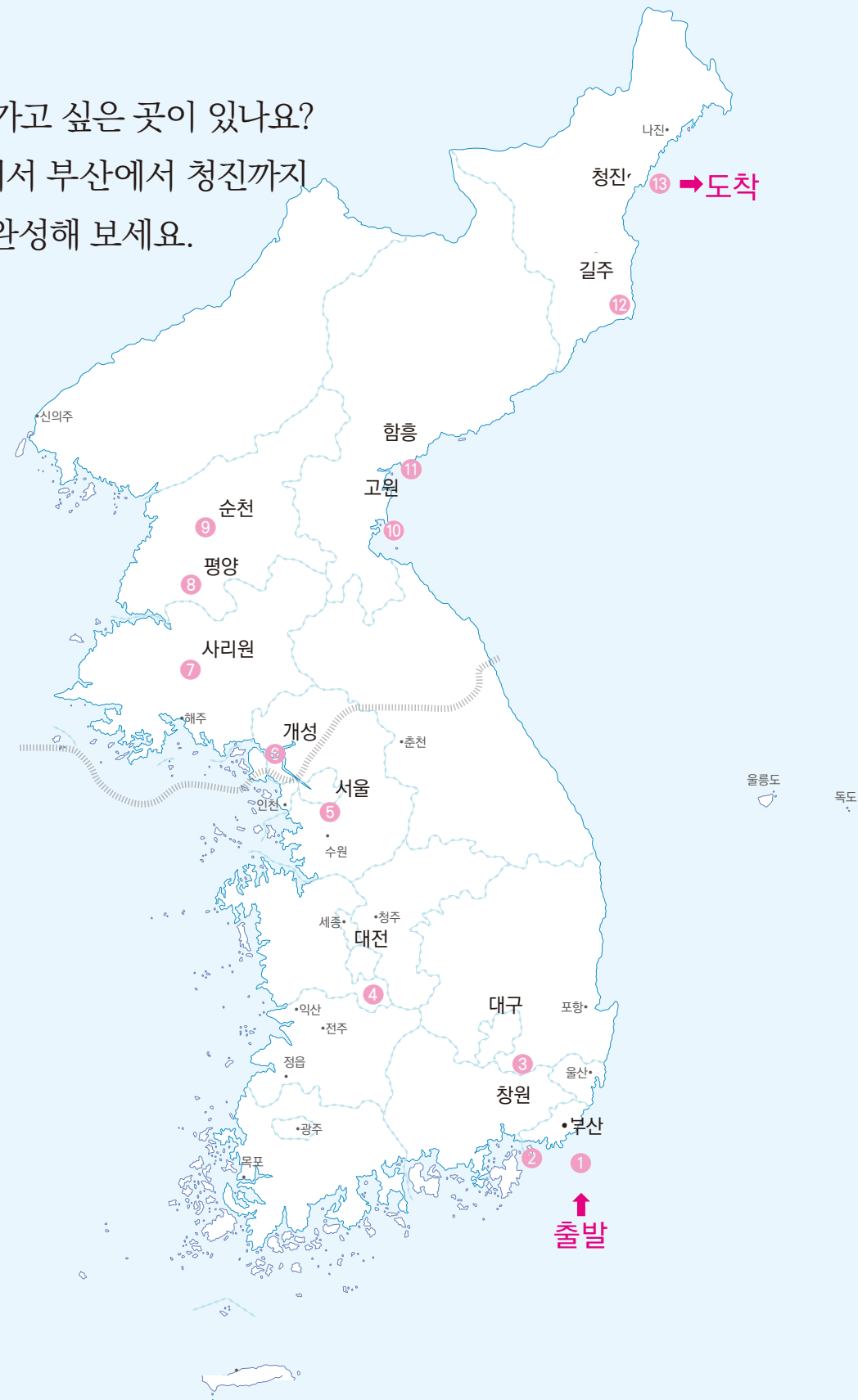
3. 민재와 동희는 무지개 유치원에 다녀요. 각 칸을 주어진 사물과 같은 색으로 칠해 무지개를 완성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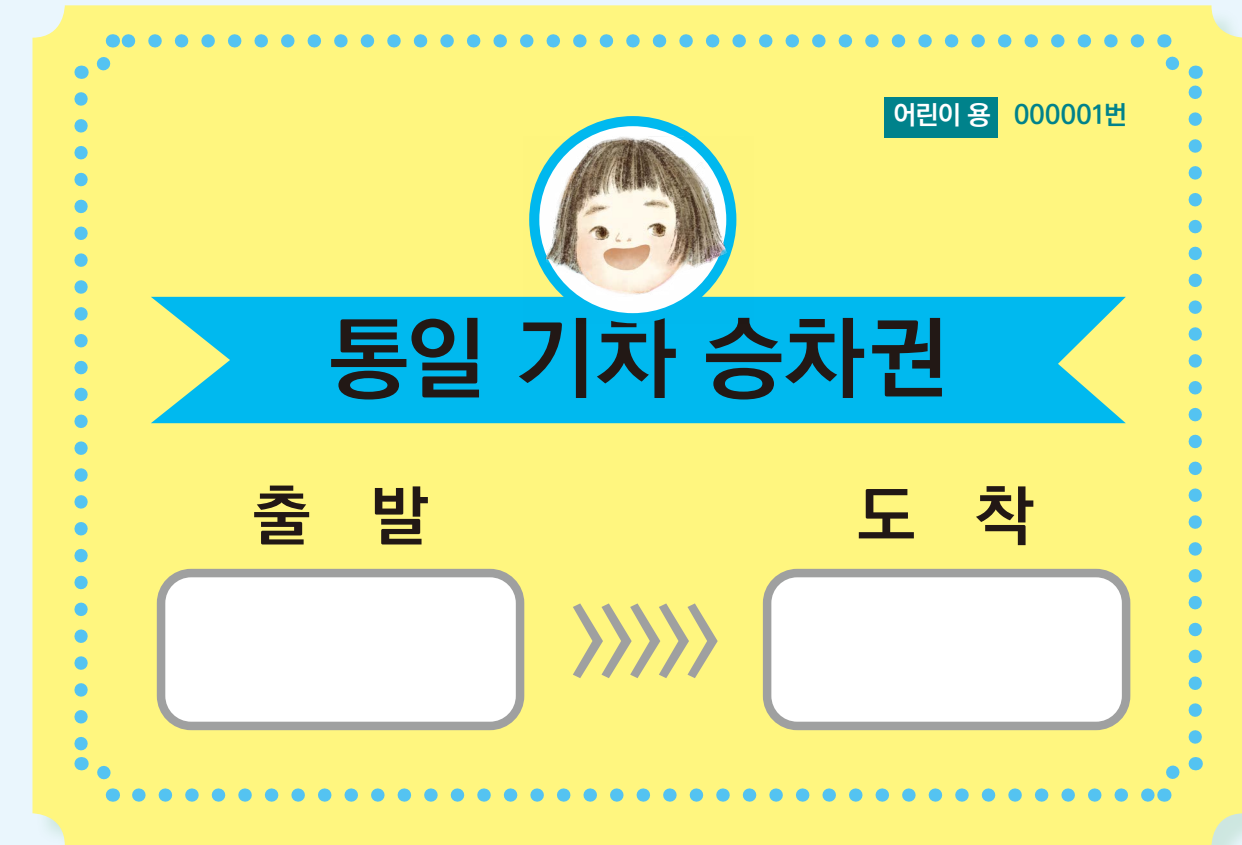


4. 통일 기차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순서대로 점을 이어서 부산에서 청진까지  
기차가 가는 길을 완성해 보세요.



5. 통일 기차 승차권에 출발하고 싶은 역과 도착하고 싶은 역의 이름을 써 보세요.





정답

1.



2. 나

4.



QR 코드를 찍으면  
애니메이션  
《이헤리와 리헤리》를  
볼 수 있습니다.



통일 그림동화 02  
캠핑 가는 날

글 전현정 그림 서미경  
디자인·제작 주니어김영사 031-955-3100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담당 서보명 주무관)  
주소 01018 강북구 4. 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7 홈페이지 www.unideu.go.kr  
발행일 2019. 12.  
ISBN 979-11-964775-9-2 <비매품>



이 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공기를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민재와 동희는 얼굴 생김새도,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모두 달라요.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비매품>



ISBN 979-11-964775-9-2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